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표준화

간협, 가이드라인 개발해 전국 병원에 배포

신규간호사가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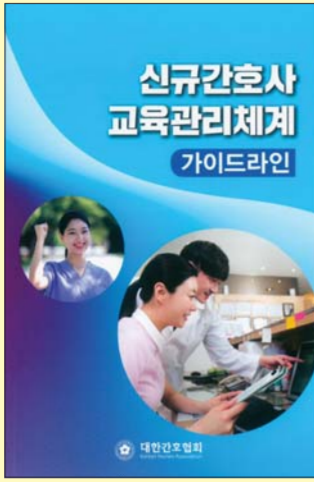
대한간호협회는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실시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 구축'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다.

가이드라인 개발의 목적은 신규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교육관리체계를 구축해 신규간호사의 조기이직을 예방하고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규간호사가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전문적 간호사로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지원기간을 1년으로 제시했다. 프리셉터와 신규간호사가 동일한 환자를 담당하면서 교육이 이뤄지



는 오버랩 기간은 최소 3개월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신규간호사 교육 △교육담당자 양성 △교육프로그램 평가로 구성됐다.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에는 신규간호사 교육의 기본원칙, 간호교육팀의 설치 및 운영, 간호교육팀의 역할 및 배치 기준, 기타 지원체계 등을 담았다.

'신규간호사 교육'에서는 교육 목표, 교육운영체계, 역량기반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피드백 등을 다뤘다. 교육성과 및 단계별 성취수준 예시, 핵

심역량 및 항목, 항목별 성취 수준 예시, 시기별 교육과정안, 항목별 교육방법 예시 등을 제시했다.

'교육담당자 양성'에서는 교육 전담자의 역할 및 역량, 교육전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프리셉터의 역할 및 역량, 프리셉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다뤘다.

'교육프로그램 평가'에서는 평가시기, 평가의 활용, 시기별 평가 항목 및 방법 등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은 병원의 규모나 신규간호사 수에 따라 수정해 활용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어려운 병원에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등을 활용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도록 했다.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구성을 조합해 실현가능한 교육을 계획할 수 있으며, 기관의 특성에 따른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하면 된다.

가이드라인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무료 배포됐으며,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홈페이지(edu.kna.or.kr) 공지사항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오는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형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

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의 혈당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건강보험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이다. 인슐린자동주입기는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이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다.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

한국, 2020년 WHO 집행이사국 진출 내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WHO 집행이사국에 내정됐다고 10월 9일 밝혔다.

서태평양지역에 배정된 5개의 WHO 집행이사국 중 임기가 만료되는 국가가 있으면, 해당년도 지역총회에서 다음 WHO 집행이사국을 내정하고, 다음년도 5월 WHO 총회에서 이를 확정하고 있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3년 임기)으로 구성되며, 현재 서태평양지역에는 일본, 호주, 중국, 싱가포르, 통가 총 5개국이 WHO 집행이사국으로 배정돼 있다.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을 대신할 집행이사국은 한국이 되는 것으로 서태평양지역 국가 간 의견이 모아졌다.

2020년 5월에 예정된 WHO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1949년 WHO 가입 이후 일곱 번째 진출에 해당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1960~

1963년, 1984~1987년, 1995~1998년, 2001~2004년, 2007~2010년, 2013~2016년 등 총 여섯 차례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한 바 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까지 서태평양지역의 대표로서 보건분야 국제기구 중 가장 권위가 있는 WHO를 이끄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집행이사국은 보건분야 전문가 한 명을 집행이사로 선정하며, 집행이사는 정기 집행이사회(연 2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이뤄지는 WHO의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세계의 보건 현안을 다루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하는 바를 적극 반영하고, 우리의 정책과 연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기자 jslee@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발표

드라마 등에서 신중하게 묘사할 것 권고

영상콘텐츠에서 자살 장면을 신중하게 묘사할 것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방송과 인터넷 등 영상콘텐츠의 자살 장면이 영향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막고자 이번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방송작가협회, 생명존중 정책 민·관협의회가 함께 개발했다. 작가,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추천을 받은 방송작가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드라마·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제작할 때 자살 장면을 신중하게 묘사할 것을 권고하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자살을 문제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으며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하고 △청소년의 자살 장면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줍인' 대학생 서포터즈는 2018년 8월~2019년 7월 국내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 자살 장면이 포함된 드라마 50편을 점검했다.

그 결과 드라마 한 편당 평균 2.4회의 자살 장면이 방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해보면 자살 장면 중 95.8%가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했으며, 83.9%가 자살을 문제해결 수단으로 표현해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언론의 보도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일선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분들이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대한간호학술상 지원자 모집 안내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실무 발전을 위해 간호사의 임상연구 활성화를 장려하고 간호연구 및 간호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대한간호학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명 칭 : 2019년도 대한간호학술상

■ 상 금

• 우수상(1인) : 300만원(간호계 전반, 간호연구 및 간호발전에 이바지한 논문)

• 장려상(2인) : 각 150만원(간호실무 발전을 위한 임상현장 관련 논문)

■ 지원자격 : 논문의 대표저자가 간호사로서, 대표 저자 및 연구 참여 간호사 모두 2019년도 협회 등록회원

■ 공모대상

• 당해 연도 국내·외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당해 연도 게재예정 논문
• 타 기관에서 수상 또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 미출간 학위논문, 교수가 연구 책임자인 논문은 제외
(단, 신장자의 근무기관에서 수상하거나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허용)

■ 신청방법 : 이메일 혹은 우편 접수

• 이메일 주소 : yewang@koreanurse.or.kr

• 우편 주소 :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성림동 88-7), 3층 사업지원팀
• 전화번호 : 02)2260-2545

■ 구비서류

•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1부
• 저자 자가점검표 1부
• 논문게재 학술지(복사본 가능) 1부
• 게재예정증명서(해당지에 한함) 1부
• 회원증 사본(공동연구자 포함) 각 1부
• 연구논문파일(한글/워드파일) 1부
* 영문 논문일 경우 국문초록 반드시 첨부

■ 공모마감 : 2019. 11. 8. (금) 17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발표 : 2020년 1월 수상자 발표 예정(개별공지)

■ 시상 : 2020년 2월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

연간 발행계획에 따라 10월 31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립 인 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상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 간호사회 (02) 2261-1711	보건간호사회 (02) 525-7318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09-6348	보건간호사회 (02) 2296-7677	보건간호사회 (02) 527-3360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마취간호사회 (010-2061-6471)	보혈심사간호사회 (02) 2263-1959
인천시 (032) 441-2825	전라남도 (061) 277-2292	산업간호사회 (02) 716-9030	가정간호사회 (02) 2267-5688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노인간호사회 (052) 230-0735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82-6006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90		
강원도 (033) 263-64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편집윤리준칙을 준수합니다.

의료인 필수교육 주제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의료인은 필수교육(1개 주제 이상)을 면허신고기마다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필수교육 주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필수교육 주제

- 의료윤리
- 의료법령
- 감염관리
- 폭력·성희롱·성폭력예방
- 장애인건강권*
- 응급상황대비교육(기본소생술, 전문심혈관 소생술 등)*
- 자살예방*
- 노인·아동학대예방*

* 표시는 2019년도 추가된 필수교육 주제입니다.

독자주소 변경

☎ 02)2260-2571

한강과 라인강의 두물머리

파독간호사 강정희 단편소설 모음집



파독간호사 강정희 작가의 단편소설 모음집 '한강과 라인강의 두물머리'가 발간됐다. '파독간호사의 애환'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그동안 수필, 시, 소설, 시조 부문에서 등단하며 열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해온 강정희 작가가 수필집과 시집에 이어 이번에 단편소설 모음집을 펴냈다. '라인강의 눈물' '푸른 별을 딛고서' 등 총 11편의 단편소설이 실렸다. 각 작품의 주인공은 파독간호사와 광부이며,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애환을 담아냈다.

김봉근 문학평론가는 서평을 통해 "강정희 작가는 단편소설을 통해 만남, 자기희생적 사랑, 마침내 성취된 참 만남의 축복, 인생 승리의 경지를 말하고 있다"면서 "주인공들은 역경에 맞서 분투하며 강인한 의지력과 사랑으로 현신하고 희생하며, 스스로에 대한 강한 신뢰와 자부심에 찬 긍정적 인간 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독간호사들의 생애를 사랑의 눈으로 관조하고 묵상해온 작가 정신에 감체를 보인다"고 밝혔다.

김옥자 시인은 "파독간호사로서의 열정과 희생의 존귀함이 강정희 작가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결정체로 탄생됨에 시선을 머물게 하는 매력적 힘이 있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강정희 작가는 책머리에서 "한 옛된 파독간호사가 젊은 시절을 소독물에 배어 보내고, 인생 가을 길에 늦깎이 작가가 됐다"면서 "제2의 고향 독일 하는 아래 인생 수레바퀴 속에 얼룩진 주제를 새롭게 다듬고 갈고 닦아 인생의 향기 진득한 이야기로 엮은 단편집"이라고 밝혔다.

강정희 작가는 순천침양대를 졸업했다. 1969년 독일로 건너가 수술실 간호사로 일했고, 병원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책임자로 활동했다. 2010년 정년퇴직했다. 디아코니아 훈장을 받았다. 현재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랑엔펠트에 살고 있다. 문학광장 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외동포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문학광장 / 222쪽 / 12,000원 / 구입문의 010-4132-8158)

정규숙 기자 kschung@

그리스 피어리어드

LA 간호사 하정아 힐링 간호에세이



재미간호사 하정아 작가가 힐링 간호에세이 '그리스 피어리어드(Grace Period)'를 펴냈다. 8부로 구성된 54편의 에세이는 사랑과 생명과 영성의 조화를 보여준다.

책 1부 '아침에는'에서는 생명예찬을, 2부 '피지의 눈동자'에서는 원시적 자연과의 교감을, 3부 '나는 이렇게 간호사가 되었다'에서는 간호사의 적격성을 다뤘다. 4부 '툼과 땀'에서는 병동의 웃음과 눈물을, 5부 '그리스 피어리어드'에서는 유예기간 그리고 은혜의 기간 사례를, 6부 '네 개의 창'에서는 작가의 내적 고백을, 7부 '꽃의 연한'에서는 명상의 율림을, 8부 '미중물'에서는 자신에게 멘토가 된 간호사와 닥터를 소개한다.

하정아 작가는 "나를 돌봐줄 간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 자신조차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내면의 상처와 갈망을 알아내어 주는 심안을 가진 사람을 원할 것"이라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견고한 손을 내미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글, 생명이 되는 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에세이를 펴낸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은 내게 영감과 사색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여주며, 인생의 멘토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나는 진실과 사랑의 이야기를 글로 엮어내고 풀어내는 기쁨이 크다"고

밝혔다.

박양근 문학평론가는 "천성 간호사이며 천성 작가인 하정아는 어둡고 차갑게 기승되기 쉬운 병동 이야기를 우아함 고결함 순결함을 지닌 서사로 풀어냈다"면서 "좋은 에세이의 조건을 모두 갖췄으며, 긍정의 답툼들이 모여 있어 간호 명상으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호 전 남가주한인간호사협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간호현장의 체면을 독특한 정서와 통찰력으로 엮은 글들이 잘 익은 과일처럼 깊은 맛이 있고, 오래된 포도주처럼 향기롭다"고 말했다.

하정아 작가는 1986년 도미해 LA에 정착했으며, 미국 간호사가 돼 종합병원 수술방 회복실에서 일하고 있다. 미주크리스천문학을 통해 미주 문단에, 문학세계를 통해 한국 문단에 발을 들였다. 간호에세이집 '코드 블루', 테마에세이집 '꿈꾸는 물 白河(백하)' 등 6권의 수필집을 펴냈다. 구름카페 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재미수필문학가협회와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 남가주한인간호사협회 이사이다. 미주중일일보에 십여년째 칼럼을 쓰고 있고, 문학동화회에서 수필창작을 지도하고 있다.

(도서출판 바람꽃 / 316쪽 / 14,000원)

정규숙 기자 kschung@